

하늘의 그 뜻을 생각했으면

신윤식

내일이 되어  
환한 햇살 보거들랑  
오늘처럼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비룩한 이 한 몸  
일으켜 세우시고  
기적의 하루가 있게 하신  
하늘의 그 뜻을 생각했으면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실 때  
하루하루에 동행 하시며  
신비한 그 나라로 이끄시는  
하늘의 그 뜻을 생각했으면

어느 때에  
하루가 멈춘다 해도  
어제, 오늘, 내일  
하늘의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 삶일진대  
멈춤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뜻을 생각했으면

# MATHETES

제23권

## 49

2015년 12월 13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http://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성희  
협동장로  
조규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세상에 통용되는 보편적 상식이나 지식, 또는 윤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로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말씀의 홍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방송과 인터넷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로부터 나와지는 말씀과 은혜와 상관없이 나와지는 말씀 아닌 말씀은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설사 여러분이 어떤 설교에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은혜 받은 자로부터 나와진 말씀이라고 선불리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자기감정에 속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믿지도 치우치지도 말고 냉철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끌어가는가를 기준해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이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자기감정과 보편적 상식과 지식과 윤리에 부합되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말씀이 담고 있는 참된 진리와 은혜

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감정에 와 닿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으며 자기 상식에 부합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은혜로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소위 감동적인 예화와 내용으로 각색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당혹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은 감동을 주고 어떤 부분은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이 서로 다를 때 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당혹스러움을 오늘 본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까요? 18절에서 말하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점에서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것은 없습



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된 그 배경은 분명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급작스런 죽음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스테반,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순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납득합니다. 복음을 위한 거룩한 죽음, 순교로 이해하면서 신자로서 영광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우리의 종교적 상식과 감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납득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겠다고 하신 것이 곧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었으니까, 따라서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한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그 어떤 슬픔을 나타내지 말라는 뜻임을 생각해 보면 장례식 자체를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아침에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때문에 갑자기 죽게 된 에스겔의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에스겔 아내의 입장은 물론이고 급작스런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할 수 없는 에

스겔의 입장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겠다 하셨을 때에도 에스겔은 그 말씀의 의미가 자신의 아내를 죽게 하겠다는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릴 수 없었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잃은 슬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되게 하신 일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하시는데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만 중요했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에스겔에게 기쁨이 되었고 아내가 죽었다면 슬퍼하고 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식과는 다르게 에스겔은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행동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에스겔에게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마나하겠느냐” (19절)**라고 묻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들이 마음으로 아끼는 성소를 더럽힐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을 칼에 죽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21절).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죽은 자를 위해 울고 슬퍼할 겨를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22,23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기쁨과 행복에만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면서 에스겔의 아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에스겔 또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커녕 그가 기뻐하는 아내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납득이 안되고 불의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자기의 기쁨과 행복과 아픔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한 자로 살아왔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것을 빼앗기면 아파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도외시하며 오직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죄의 인생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아예 성경을 통째로 암기한다고 해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잡니다. 때문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자신의 기쁨과 아픔에서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에 중요성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 자기 보람을 삼고 기쁨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말씀과는 무관한 것일 뿐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중요시 하는 것이라고 말 하지만 에스겔의 경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생각하는 말씀의 실천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말씀 실천의 주된 의미는 전도, 구제, 봉사, 헌금 등입니다. 하지만 분명 본문을 두고 생각한다면 말씀 실천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무엇을 빼앗으신다 해도 슬퍼하거나 울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 죽어도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 내용은 죽음에 대한 어떤 규례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겔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낳 때에 배꼽 줄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은 채들에 버려진 천한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자라서는 사랑하시어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이방 나라가 누리는 것을 아름답게 보고 그들의 것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과 분노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다. 자신의 기쁨과 행복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아픔과 고통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면서 울고 슬퍼할 겨를도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



라 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까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습니다. 아예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여기지도 않을뿐더러 하나님의 아픔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아픔을 얘기 한다 해도 우리가 아파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에서 이해할 뿐입니다. 가령 빈곤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아이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과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당혹스럽게 합니다. 또한 누구도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된다면 자신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아픔이 있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우리의 실상임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은혜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말하는 말씀 아닌 말씀은 인간의 기쁨에만 관심을 둡니다. 우리를 아픔에서 건져주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과는 무관합니다. 신자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여 십자가로 연결된 것이라면 우리의 죄로 인해 기뻐하시는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를 아픔에서 건지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뻐하는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만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아픔을 표징으로 삼아 장차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을 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것은, 참된 믿음은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픔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자기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



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아들을 버리시는 아픔이 동반된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기쁨이 되는 백성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혹 내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그 또한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버리신 아픔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아픔을 통하여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같이 예수 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라 하라 하셨느니라” (24절)**은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기면 울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

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며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마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애통이 없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픔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주지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로 존재할 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일오후설교

(11.22일 설교 : 믿음 41강)

## 믿음과 자유

요 8:31-36

사람은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굴레가 되고 번뇌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벗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불교에서 승려들이 평생 고행이라는 것을 하면서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지만 결국 실패로 끝날 뿐입니다.

사람이 만약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자신에게서 벗어날 자가 없음을 전제한다면 그러한

자유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자신을 벗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에게 매어있고 자신이 짐이 되어 있다는 뜻을 생각한다면 자유는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한 자유를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고 그로 인해 불만족과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의 현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도 짐이 되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3:32절)고 말씀합니다.

자유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진리가 곧 우리를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평생을 고행으로 마무리해도 안되는 ‘자유’라는 엄청난 일이 진리로 된다면 진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 신자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신앙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것은 신앙을 수단으로 해서 신으로부터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신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신을 섬겨야 하는 공식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을 위한 신앙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신앙 세계에 뛰어 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인의 신앙 세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 세계를 지키고자 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37,40절).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3절)라고 반문합니다.

이들은 자유하지 못한 상태를 종의 신분으로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 된 적이 없는 자신들에게 자유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그들은 죄의 종이였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4절)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유대인의 현실이었고 오늘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신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현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추구하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는 자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모두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복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자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일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되고,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두지 못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지 못한 자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할까요? 죄는 인간이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율법을 실천하는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가려지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존재'라는 인간의 본질적 존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복도 자신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인간에게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이 교도소 안에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한 죄인들이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물겠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죄의 종 된 인간이 구원과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인간으로서는 무엇으로도 구원과 복을 누릴 자격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정성과 노력을 보인다고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같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죄로부터 자신을 건지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추구하던 신앙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자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갈 5: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신자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유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후에 할 일을 줘서 그것을 실천했을 때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그 자유를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세계는 우리의 정성과 행함과 실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보다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나 편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을 때 그 자유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관계로 드러납니다. 내 이익과 편함을 위해 자유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 진리를 서로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 하는 것입니다.



갈 5: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의롭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으로 말씀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율법은 인간의 행위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율법에 머물러 하고, 자신의 행함에 붙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이루신 예수님의 온

혜보다는 자신의 행함을 더 확실한 증거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에 매이고 죄에 매여서 진리로 인한 자유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길로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자신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한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매이지 않은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이러한 자유의 세계로 끌어잡니다.

수요일설교

(129일 설교 79강)

## 야곱의 하나님

창 31:38-43

‘돌아가라’ 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은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라반 몰래 도망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을 쫓게 되고 칠일 길을 뒤 쫓아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아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는 말로 야곱이 자신 몰래 도망친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타박합니다.

라반의 말을 들으면 야곱이 잘못 처신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얼마든지 라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라반으로 하여금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작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반의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라반은 야곱의 양 떼가 많아진 것으로 인해 야곱을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라반도 야곱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둘 다 탐심으로 가득하여 자신의 것을 채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반이든 야곱이든 누가 잘하



고 누가 잘못했다는 판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내용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라는 존재가 라반이든 야곱이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탐심에 대해 판단하려면 적어도 판단자는 탐심과는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누구도 라반과 야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고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것에 대해 추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라반에게 야곱에 대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야곱의 행위에 대해 선악을 따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못했다 못했다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야곱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왜 야곱의 잘못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간됨이 아니라 야곱의 위치입니다. 인간됨은 야곱이나 라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증거 할 역할자로서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라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은 비록 선택된 자

로부터 인간의 악함과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도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선악을 타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을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야곱을 선악간에 말한다 해도 결국 자신에게 섭섭하게 행한 것과 해를 끼친 일에 대한 추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26-28절의 내용이고 30절에서 자신의 신을 훔친 일에 대한 추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서는 서로에 대해 선악간에 말하는 것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뜻이고, 따라서 그에게서 그 어떤 잘못과 죄가 드러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조차도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길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라반처럼 행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나를 섭섭하게 하고 해롭게 한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판단과 비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에 있음을 신자라 이름 하는 본인조차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은 라반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29절)는 말



로 말로 야콥을 추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었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비판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비판할 수 있으나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마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담긴 뜻과 의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라반이 야콥과 라헬, 레아의 장막에서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야콥이 라반을 추궁하게 됩니다. 38절부터 보면 야콥은 자신이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였는데도 라반은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꾼 일을 두고 추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 책망하신 것도 라반으로 하여금 자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야콥의 수고를 보시고 라반에게 나타나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콥도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콥이 이해하는 야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콥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콥의 어리석음과 탐심과 죄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이 더 강합니다. 때문에 야콥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야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의 의지고 열심인 것이지 나의 의지와 열심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함으로 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지금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어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백성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의지나 열심 등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열심의 결과일 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본문 뒤에 보면 라반이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세우고 야콥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2절)입니다. 서로 돌무더기를 넘어서 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라반은 그렇게 자기의 길로 갈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콥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백성 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됨을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찾아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 길로 가는 것이 백성 됨이기 때문입니다.





##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중등부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금요일기도회 오후 7시30



(붉은 인동초)

##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막 8:33-3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전 예배

11:00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42장  
교 독 문 60(시139편)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458장  
성경봉독 **골 2:15-24**  
설 교 **신윤식 목사**  
**가뻘하는 것을 빼앗음(56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94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2장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기도 : **이성희 장로**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오후 예배

14:30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620장  
기 도 **명기룡 집사**  
찬 송 549장  
성경봉독 **민 4:1-3**  
설 교 **신윤식 목사**  
**믿음과 봉사(믿음44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212장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주일기도 : **김옥분 집사**

## 수요일예배

19:30 인도: 신윤식 목사

창세기 80장

## 은석소식

1. 25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2. 성가대 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김종건 집사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 2016년에 수고하실 주일학교(학생부, 유년부) 교사는 장영대, 박철현, 김현동, 박영선, 신미정, 임수희(반주)집사입니다.
4. 2016년에 수고하실 봉사부장은 최두임 권사입니다. 2016년에 식사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봉사부장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5. 송재관, 이옥주 집사 장녀가 미국에서 딸을 순산했습니다.
6. 동부노회 권사회 모임이 15일(화)오전 11시에 낙원로교회당에서 있습니다.